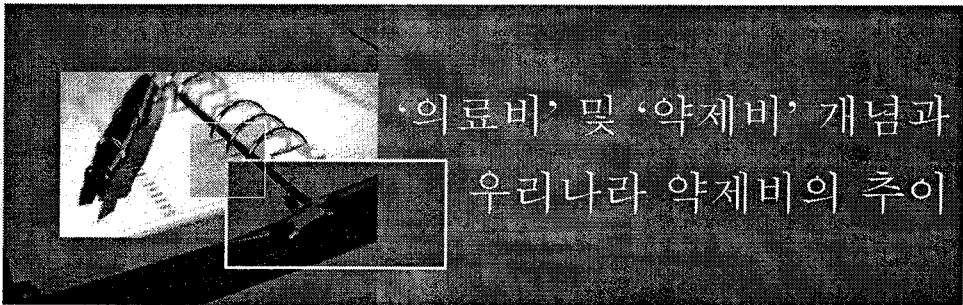


‘의료비’ 및 ‘약제비’ 개념과 우리나라 약제비 추이

정 형 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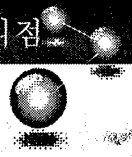
‘OECD 국가의 약제비 규모 인용 시 주의점



1 흔히 인용되는 OECD의 약제비 규모에는 *약품(Pharmaceuticals)*만이 아닌 *의료소모품(medical non-durables)*에 대한 지출이 포함됨

- ✓ 우리나라의 수치도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교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 다만, 몇몇 OECD 국가들의 경우 의료소모품(medical non-durables)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지 있지 않고, 상당수 국가에서 그 지출규모가 미미하게 제시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약품/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OECD 기준) 인용 시 주의점



2 OECD Health Data에서 발표되는 약제비에는 ‘입원’에서 사용되는 약에 대한 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약품/의료소모품(Pharmaceuticals and medical non-durables)은 ‘의태용 의료제회(Medical goods dispensed to outpatients)’의 하나임

‘약품/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OECD 기준) 인용 시 주의점



3 우리나라의 약제비 데이터에는 *한방첩약*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음

‘약품/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OECD 기준) 인용 시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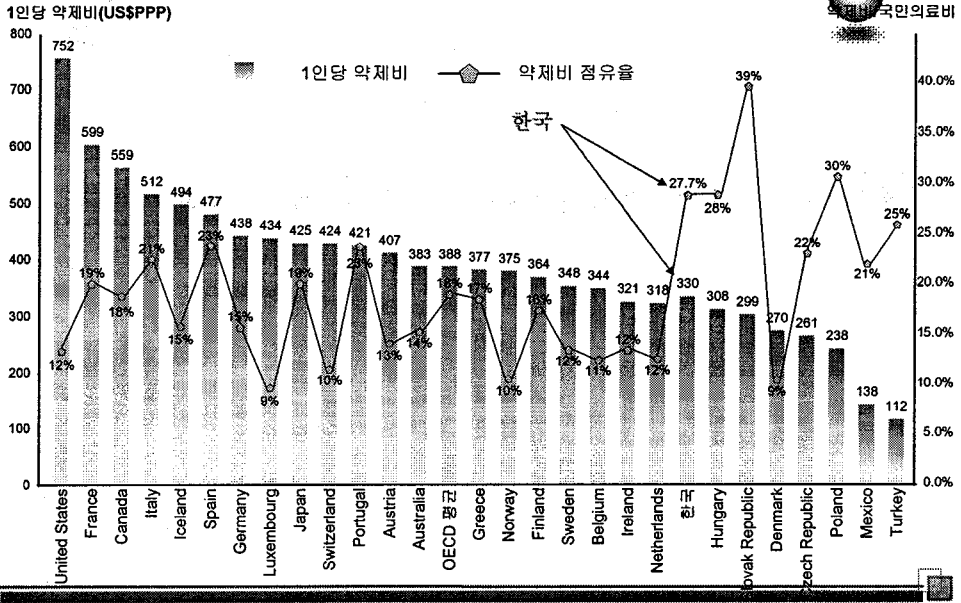


4 OECD의 약제비에는 *조제료*나 *관리비*도 포함됨

- ✓ 따라서 의약품 소비의 물량규모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제비 데이터의 비교에 추가하여 국가간의 조제료의 차이 또는 경시적인 조제료 규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필요함

OECD 국가의 1인당 약제비 및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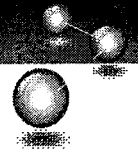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

□ 실제로 약제비의 비중이 높은 부분

- ✓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최소 3%p 이상 높음
- ✓ 다만, 흔히 인용되듯이 10%p 이상 높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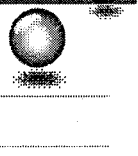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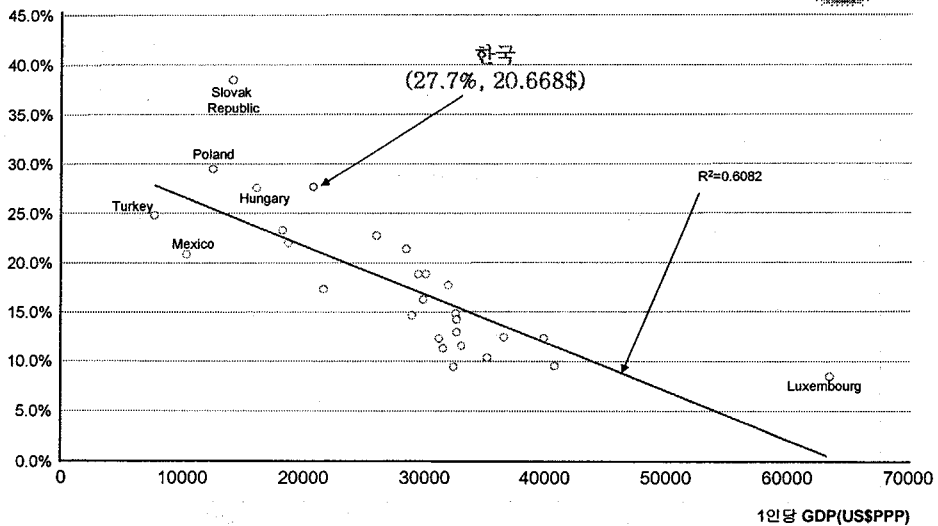
□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는 국민의료비 규모가 작고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높은 공통적 현상

- ✓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도 1인당 약제비 지출의 절대액 규모는 낮은 편이나 의료비에서의 약제비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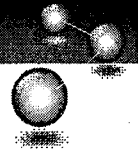
'1인당 GDP(US\$ PPPs)'와 '약제비의 점유율' 간의 관계, 2004



약제비/국민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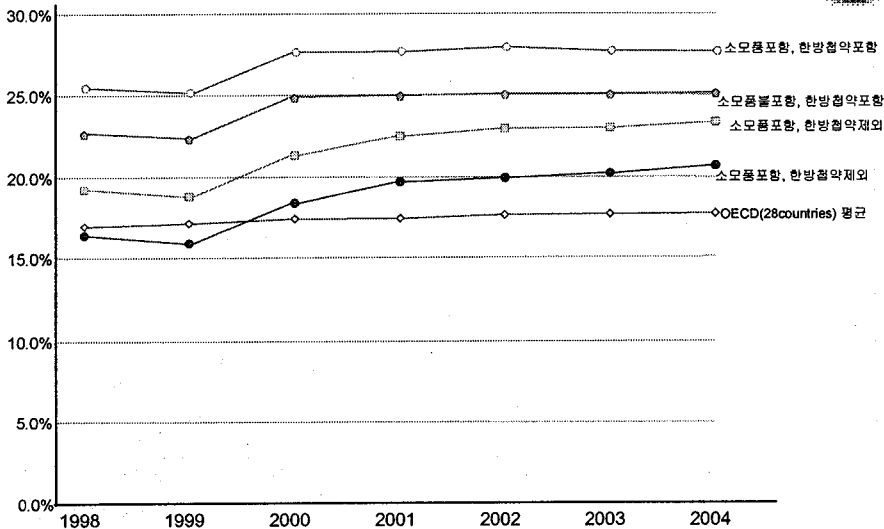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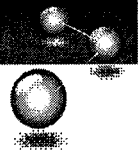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



□ 우리의 약제비에는 한방첩약이 포함되어 있음

- ✓ 또한, 한국의 '약제비(의약품/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에는 의료소모품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보다 철저히 반영되어 있음

약제비 비중의 경시적 변화, 한국 및 OECD 평균의 비교



우리나라의 2004년 약제비 규모(약제비 지표 종류별)

	약제비등 규모 (십억원)		1인당 (US\$PPP)		국민의료비 점유율		GDP 점유율	
	전체	한방침 약제외 시	전체	한약 제외시	전체	한약 제외시	전체	한약 제외시
합계(의약품/의료소모품)	12,171	10,257	330	278	27.7%	23.4%	1.6%	1.3%
의약품	10,994	9,080	298	246	25.0%	20.7%	1.4%	1.2%
(전문의약품)	7,731	7,731	210	210	17.6%	17.6%	1.0%	1.0%
(약국비급여의약품 또는 한방침약)	3,262	1,349	88	37	7.4%	3.1%	0.4%	0.2%
의료소모품	1,177	1,177	32	32	2.7%	2.7%	0.2%	0.2%

약제비 규모와 의약품 물량소비의 관계

- 우리의 낮은 1인당 약제비 규모가 약품에 대한 우리국민의 1인당 의약품 물량소비가 낮은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반대로 높은 약제비 비중이 약품에 대한 우리국민의 물량소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약품에 대한 물량적 소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대적 약품가격 수준을 반영한 약품 구매력지수가 신뢰성 있는 자료로 구축되어야 하고, 보다 나아가서는 DDD(Defined Daily Doses)와 같이 물량 규모를 단위로 하는 약품 소비량이 파악되어야 함